# 최하위 KIA '서울 6연전'… 반등여부 고비

### LG 트윈스와 주중 3연전… 주말엔 키움 히어로즈 지난주 1승만 거둔 NC, kt·한화 상대로 반전 노려

KIA 타이거즈는 지난주 치른 6경기 에서 모두 패했다. 22일 현재 유일하 게 10승에 도달하지 못한 팀이 KIA (8승 1무 15패)다. 결국 최하위로 처 진 KIA는 이번 주 잠실구장과 고척 돔에서 반등을 노린다.

KIA는 23~25일 잠실에서 LG 트 윈스와 주중 3연전을 치르고, 26~28 일에는 고척돔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맞선다. KIA는 올 시즌 첫 서울 원정 을 무척 무거운 분위기에서 치른다.

지난주 KIA는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를 만나 뼈아픈 6연패를

당했다. 롯데와는 매 경기 치열한 난 타전을 펼친 끝에 패했고, 마무리 김 윤동마저 부상으로 이탈했다. 두산 전에서는 '힘'에서 밀려 완패했다.

주간 평균자책점이 9.34에 이를 만큼 무너진 마운드를 재건하는 게 급선무다.

지난해 KIA는 잠실구장에서 5승 11패, 고척에서 3승 5패에 그쳤다. 혹독했던 지난해 서울 원정길 결과 가 올해 첫 방문에도 이어지면 KIA 의 부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시즌 초 순항하다 지난주 1승 5패에

그친 NC 다이노스에도 반전이 필요하 다. NC는 주중 수원 케이티 위즈 파 크에서 kt wiz와 만나고, 창원 홈으로 옮겨 한화이글스와 대결한다.

지난해 NC는 kt에 5승 11패로 밀 렸다. 한화에도 7승 9패로 열세였다. 결국, NC는 2018년 창단 후 처음으 로 최하위(10위)에 그쳤다.

올 시즌에는 현역 최고의 포수 양의 지를 영입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kt 와 첫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고, 한 화에는 1승 2패로 밀리긴 했지만 치열 하게 싸웠다. NC는 22일 현재 공동 3 위다. 이번 주 NC는 상위권 도약과 중하위권 추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

두산, SK 와이번스가 펼치는 선두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두산은 17승 8패로 SK(15승 9패) 에 1.5게임 차 앞선 선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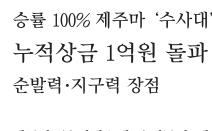
주중 키움과의 고척 3연전이 선두 수성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은 지난해 키움과 8승 8패로 맞 섰다. 박병호, 제리 샌즈, 김하성 등 거포에 이정후 등 정교한 타자를 갖춘 키움은 두산에 매우 껄끄러운 상대다.

키움 역시 투타가 가장 안정된 두 산을 강팀으로 인정한다.

두산-키움전은 25타점으로 이 부문 공동 선두를 달리는 '구관' 김재환(두 산)과 '새 얼굴' 장영석(키움)의 타 점 대결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홈런포가 터지기 시작한 SK는 상대 적으로 투수력이 약한 삼성 라이온즈, kt를 상대로 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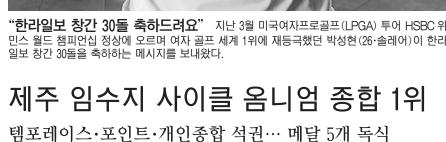
제주마 '수사대(3세 수말)'가 데뷔 이래 7전 전승을 달성과 함께 누적 상금 1억원을 돌파하며 화제다.

'수사대'는 지난 20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열린 5경주(1100m)에서 막판 폭발적인 뒷심으로 역전우승을 차지하며 7연승을 질주했다.

전현준 기수와 호흡을 맞춘 '수사 대 '는 스타트가 늦어 경주 내내 중 위권에서 경주를 전개했다. 4코너를 돌면서까지도 선두권에 보이지 않 던 '수사대'는 결승선 약 300m를 남기고 엄청난 스피드로 막판 스퍼 트를 올리면서 짜릿한 역전 명승부 를 연출했다.

지난해 6월에 데뷔한 '수사대'는 데뷔전에 이어 4연승을 기록하고 지 난해 11월 열린 제주마 브리더스컵 대상경주를 재패하며 신예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특히 연승가도에 차츰 늘어난 경주거리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지난 3월 1000m 경주에서 초 반 선두권 진입 후 막판 뒷심으로 우 승을 거뒀으며 이번 경주에서도 막 판 뒤집기로 연승을 이어갔다.

7전 전승 승률 100%를 기록 중인 '수사대'는 데뷔 10개월 만에 누적 우승상금 1억400만원을 기록 중이 다. 순발력과 지구력을 고루 갖춰 대 표 제주마로 성장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백금탁기자



OFIZOHHUB

방성한 입니다.

창간 30%을

진심으로 축하는라요

제수의 대표난문 한라일보

SOLAIRE

지난해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임수 지(영주고 2·사진)가 제36회 대통령 기전국사이클대회 여고부에서 메달 5개(금 3·은 1·동 1)를 획득하며 선 전했다. 특히 옴니엄 5개 부문에서 모두 입상하며 개인종합 1위를 차지.

금의환향했다. 임수지는 지난 19일 전남 나주전용 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 옴 니엄(스크레치) 5km에서 2위로 골인 하며 38점을 챙겼다. 이어 옴니엄(템 포레이스) 5km에서 1위로 들어오며 40점을 추가했다. 또한 세 번째 옴니 엄(제외경기)에서 3위로 경기를 마치 며 36점을 보탰고, 마지막 옴니엄(포 추가하며 종합점수 172점으로 옴니엄 개인종합 1위에 등 극했다.

임수지는 지난

해 1학년 자격으로

전북 진안에서 열

린 제99회 전국체 전 여고부 사이클 개인도로에서 1위 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도 지난 3월 전남 강진 일원에 서 펼쳐진 제66회 3·1절 기념 전국 도로사이클대회 여고부 개인도로 79 km에서 개인종합 2위를 차지하며 메달 레이스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LG SIGNATURE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문원배 심판위원장 재선임 동아시아 유도연맹

인트) 경기를 1위로 마치며 58점을

문원배(71·사진) 전 제주도유도회장 이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 라 노보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유 도연맹 총회에서 동아시아 유도연맹 심판위원장 및 아시아 유도연맹 심 판위원으로 재선임됐다.

문 전 회장은 2012년부터 대한유



도회 심판위원장을 맡아 공정한 심판 질서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아시아유 도연맹 심판위원과 동아시아유도연맹 심판위원장을 역임

하면서 탁월한 스포츠 외교력을 발 휘했다. 또한 2017년 문화체육관광 부로부터 제55회 대한민국 체육상 심판상을 수상했다. 백금탁기자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 최경주 8년 만에 우승 기회 "아깝다"

#### 13개월 만에 톱10 진입

새 출발을 선언했던 '탱크' 최경주 (49)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 회에서 우승 경쟁 끝에 13개월 만에 톱10에 들어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1오버파 72타를 쳐 공동10위(7언더파 277타)에 올랐다

최경주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사 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헤드의 하버 타운 골프링크스(파71)에서 열린 PGA투어 RBC 헤리티지 최종 라운 드에서 1오버파 72타를 쳐 공동10위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20:30 비켜라 운명아

21:00 KBS 뉴스 9

22:00 시사기획 창

22:55 오늘밤 김제동

19:40 보물섬

23:35 숨터

(7언더파 277타)에 올랐다.

최경주가 PGA투어 대회에서 톱 지난해 10kg이 넘게 체중을 줄이고 10 성적을 거둔 건 지난해 3월 코랄 레스 푼타카나챔피언십 공동5위 이 후 1년1개월 만이며 이번 시즌에서 는 처음이다.

> 같은 톱10이라도 코랄레스 푼타카 나 챔피언십 때와는 값어치가 훨씬 앞선다. 코랄레스 푼타카나 챔피언 십은 같은 기간 열린 월드골프챔피 언십(WGC) 매치 플레이에 나가지 못한 중하위권 선수만 출전한 B급

대회지만 RBC 헤리티지는 세계랭 킹10위 이내 5명 등 정상급 선수와 경쟁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그때는 마지막 날 66타를 몰아 쳐 순위를 끌어 올렸지만 이번에는 선두권에서 우승 경쟁을 펼친 끝에 받아낸 성적표라서 더 값지다.

체중 감량 이후 운동과 식이요법으 로 날씬하고 근육질 몸매를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는 최경주는 이번 톱10으 로 PGA투어에서 여전히 우승을 다툴 경쟁력이 회복됐음을 알렸다.

최경주는 26일부터 열리는 취리히 클래식에서 또 한번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7:00 KCTV 뉴스 18:00 KBS 경제타임 18:50 용왕님 보우하사 18:55 JIBS특집 학교 19:30 MBC 뉴스데스크 18:30 2TV 생생정보 미래를 보다 8:30 신 삼춘 어디감수과 20:55 웃음 주식회사 19:55 SBS 8 뉴스 19:50 왼손잡이 아내 9:00 KCTV 뉴스 20:30 글로벌24 속암수다 20:35 JIBS 8 뉴스 10:00 챌린지 퀴즈챔프 22: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20:55 본격연예 한밤 20:55 국민 여러분(재) 11:40 오키즈 22:00 국민 여러분 22:3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22:00 해치 13:00 신 삼춘 어디감수과 22:35 국민 여러분 23:10 PD수첩 22:35 해치 14:00 KCTV 뉴스 23: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6:10 UHD 특선 23:10 불타는 청춘 1부 17:40 신기한 놀이나라 23:40 전국이장회의(재) 23:50 불타는 청춘 2부 18:30 열린TV광장 19:00 KCTV 뉴스7

▼ 73 ▼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b 서귀포시 FM 105.9Mb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23일



36년 자녀의 집을 방문하거나 갈 곳이 생긴다. 48년 독선적이나 자만은 금물. 주변의 지혜를 얻어서 추 진하라. 60년 자녀의 진로로 동분서주. 자금이 지출 된다. 72년 자녀에 대한 기쁨이 생긴다. 취업이 필요 시 동북간 길 방향이다. 84년 외출이나, 모임이 있 다. 이성교제는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37년 마음이 먼저 분주하고 할 일은 결과를 맺지 못 한다. 주변의 협력을 얻어라. 49년 이동 이사가 있거 나 변화가 생긴다. 부부간 언행자제 필요. 61년 경쟁 심리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든다. 피할 수 없다면 침착하게 대처하라. 73년 취업, 승진, 합격, 승인, 계 약의 기쁨이 있다. 85년 나를 필요로 하면 봉사하라.



38년 몸이 나른해진다. 의욕을 갖고 건강관리에 유 념하라. 50년 답답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한 발 뒤 에서 내일을 계획, 준비함이 필요. 62년 자식에 대한 일. 가족간 의논할 일이 생긴다. 74년 대담하게 행동 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86년 할 일이 늘어나고 취업이나 학업의 기쁨이 있다.



39년 갈 곳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 참할 것. 51년 집안에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드리면 좋다. 63년 귀인 도움으로 일은 해결되나, 부부 애정 적신호. 75년 강한 의욕으로 업무는 추진하지만, 대인관계나 이성교제는 올인을 하지마라. 87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방법과 대책이 떠오른다.



40년 자녀의 일로 고민 상의가 이루어지고, 부부간 언쟁조심을 하라. 52년 갑작스런 소식에 놀람이 있 고, 주변인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 64년 정신적인 스 트레스가 있으니 여유와 휴식 필요. 76년 자식관리 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라. 88년 스스로 자발적인 활 동이나 일은 기쁨 2배, 성과의 효율성은 배가 된다.



21:30 KCTV 종합뉴스

41년 주변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 53년 문 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하다. 65년 농·수산업분야 아침부터 분주해지 다. 77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아름답다. 철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 89년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 게 생각하며 한단계씩 밟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



42년 술과 인연이 많으니 운전 삼가. 54년 부부간 사 소한 논쟁이 다툼으로 번진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은 삼가. 66년 문서운이 길하고 재물운이 있으니 계 약, 매매, 인허가, 승인 관련 실익이 있다. 78년 금전 상 이득이 있는 날. 미혼자는 지출이 커진다. 90년 친



43년 업무추진이 서서히 해결되니 대인관계에 만전 을 기하라. 55년 동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마음은 강 하나 차분한 계획과 점검이 선행. 67년 돈 걱정, 자 식걱정으로 피곤하고 몸살기운이 있다. 79년 직업에 대한 갈등과 변화로 고민. 주변의 협조를 구하라. 91 년 화냄은 내게 해가 되니 건강관리에 우선하라.

구와 다정한 대화가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44년 의외로 일이 풀리거나 협조를 받는다. 매매나 가게등 처분시 해결된다. 56년 자식문제로 가정불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직장 업무로 스트레스. 68년 과 다한 기대나 언동은 금물. 신중함 필요하고 기대하지 마라. 80년 동료나 친구, 형제자매와 언쟁이 있고 다 툼이 생긴다. 92년 원칙에 충실하면 인정받는다.



45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건이 있 다. 57년 정도를 지켜 나가면 명예나 부가 따르고 주 위로부터 인정받는다. 69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른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81년 부모 님, 윗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익이 발생한다. 93년 운 이 호조되고 몸이 분주하나 건강은 유의.



46년 절도있는 행동과 인간관계에 너그러움이 필요 하다. 58년 추진하는 일이 풀리고 의욕고취. 직장인 은 대인관계에 중점을 둬라. 70년 계획하는 일이 순 조롭고 의욕도 강해진다. 82년 친구간 논쟁 또는 경 쟁하면 상대에게 패하거나 사이가 아주 멀어진다. 94년 구매충동이 생기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



47년 자녀가 소식을 전해오고 용돈이 생기는 날. 59 년 친목 또는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음 주는 자제가 필요. 71년 집안 어른께 우환이 올수 있 으니 방문 또는 전화를 드려라. 83년 부모님과 상의 할 일이 생기고 기쁨도 있다. 이성교제 길. 95년 상대 자와 언쟁이나 다툼은 피할 것. 자랑하는 일은 불리.

